

少陰人과 仁性の 관계에 대한 考察

慶熙大學校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¹

白裕相¹ * · 張祐彰¹

A Study on Relation between So-eumin(少陰人) and Inseong(仁性)

Baik You-sang¹ * · Jang Woo-chang¹

¹Dept. of Oriental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he most important part of understanding properties of Sasang-in(四象人) is analysis of human characters. In spite of that aspect, there are not enough explanations of human characters like natural virtues, for example Inseong(仁性), in Ijema(李濟馬)'s writings.

In this examination we mainly investigated particular relationship between So-eumin(少陰人) and Inseong(仁性). But revelation and practice of Inseong(仁性) are not only belonged to So-eumin(少陰人), also applied to all people of Sasang-in(四象人). Specially for the purpose of recognizing human characters, Ijema(李濟馬) assigned virtues that is to say Inuiyeji(仁義禮智), to each persons of Sasang-in(四象人).

We have explained which properties of such Sasang-in(四象人), not limited to So-eumin(少陰人), is concerned with natural virtue In(仁), actually that explanations are more concentrated to relation between Taeyang-in(太陽人) and Inseong(仁性).

Key Words : sasang-uhak(四象醫學), sasang-in(四象人), so-eumin(少陰人), taeyang-in(太陽人), inseong(仁性)

I. 서론

四象醫學에서 각 체질별 특성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性情이다. 『東醫壽世保元』에서 말하는 性情은 喜怒哀樂의 감정을 주로 의미하는데 기존의 儒學에서 仁義禮智를 本性으로 보고

喜怒哀樂을 七情에 배속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仁義禮智의 本性은 理로서 현실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으며, 오히려 喜怒哀樂의 감정이 動하는 가운데서 本性을 파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때문에 李濟馬의 저서 중에서 四象人の 仁義禮智에 대한 설명이 喜怒哀樂에 대한 것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四象人에 대한 仁義禮智 배속 중에서 주로 少陰人과 仁性の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仁의 발현과 실행은 단지 少陰人만 관련되어

* 교신저자 : 白裕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E-mail : baikys@khu.ac.kr Tel : 02) 961-0326,
접수일(2008년 7월 28일), 수정일(2008년 8월 11일),
게재확정일(2008년 8월 14일)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각 체질별 편향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仁義禮智를 배속했던 것으로 본다. 少陰人에 국한하지 않고 어느 체질의 어떠한 특성이 仁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함께 보았으며 특히 太陽人과 대비하여 살펴보았다.

II. 본 론

1. 仁義禮智 중 仁性の 특성

仁義禮智의 本性 중에서 仁性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仁義禮智 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하며 五行 속성으로는 木에 속하여 인간의 本性이 발현되는 시작점에 자리 잡고 있다. 木이 나머지 火土金水の 운행을 촉발시키듯이 仁性도 나머지 義禮智의 발현을 선도한다. 즉, 仁의 단서가 되는 惻隱之心이 제대로 動한 이후에야 四端의 나머지들도 잘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本性이 발현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利他이기 때문에 仁의 발동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을 아끼는 惻隱之心은 初發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仁性を 제외한 나머지 四端이 제대로 발현된 후에는 그 知行의 결과가 다시 마음속에 德으로 남아서 또 다른 惻隱之心을 일으키는 바탕이 되므로, 四端은 결국 모두 仁性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周易』에서 元亨利貞에 仁禮義智를 배속한 것을 보면 仁이 四端 중에서 가장 으뜸[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2. 惻隱之心의 발현

四端의 初發心, 즉 惻隱之心이 발현될 때 仁性이 바탕이 되는데 여기에는 天理가 작용하고 있다. 本性이란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이치이다. 『中庸』에서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¹⁾라 하여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것을 性이라 하였고, 朱子は 『孟子』의 주석에서 “仁義根於人心之固有, 天理之公也.

利心生於物我之相形, 人欲之私也. 循天理則不求利而自無不利, 殉人欲則求利未得而害已隨之.”²⁾라 하여 仁義가 비록 나라고 하는 특수한 개인 속에 내재되어 있으나 天理로서 公的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반면에 人欲은 物我之間의 비교에서 생겨나 사사로운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惻隱之心이 발할 때 이에 작용하는 仁性이 公的인 특성을 지닌 보편적 原理라고 한다면, 그것은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인간적으로 가깝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부모, 형제 등의 관계를 통해 느끼는 친한 감정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仁性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변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지며 현실에서 수월하게 발현되어 실행할 수 있으므로 原理에 가깝다.

이와 같이 惻隱之心이 발동할 때에 하늘이 부여한 仁性の 原理가 밑바탕이 된다. 이러한 原理가 담겨있는 사람의 마음은 보통 그릇에 비유되는데, 그 속에서 온갖 性情이 나타났다 사라지며, 마음을 놓을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 치달아 버리는 변화무쌍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마음의 변화를 예측하기 힘든 이유는 마음이 氣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니 氣가 흐르는 방향과 정도에 따라 마음도 같이 움직이게 된다³⁾.

이상을 종합해 보면, 初發心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天理인 仁性이 바탕이 되지만 한편으로 氣의 움직임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마음의 動靜이 개입되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惻隱之心은 마음의 변화에 따라 많이 좌우되어 비교적 짧게 일어났다 사라져서 단지 仁의 단서가 될 뿐이며, 이어서 仁이 근본에서부터 발현되어 지속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朱子が 仁을 “心之德, 愛之理.”라 하였는데, 여기서 愛가 바로 外物을 아끼는 마음으로 惻隱之心이 이에 해당하고, 愛之理는 本性의 天理로서 仁性에 해당하는

2) 金赫濟校閱. 孟子集註(上). 서울. 명문당. 1983. p.11.

3) 『孟子』(金赫濟校閱. 孟子集註(上). 서울. 명문당. 1983. p.125, 128.)에서 “夫志, 氣之帥也, 氣, 體之充也. 夫志至焉, 氣次焉. 故曰, 持其志, 無暴其氣.”라 하여 氣와 志(心)의 관계를 말하고 있으며, “志壹則動氣, 氣壹則動志也. 今夫臆者趨者, 是氣也, 而反動其心.”이라 하여 氣의 흐름이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1) 金赫濟校閱. 中庸. 서울. 명문당. 1976. p.2.

다. 그리고 心之德이란 惻隱之心이 발동한 것이 마음 속에 남아 어떠한 경향성과 틀로서 간직되어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다.

『孟子』에서 惻隱之心은 仁之端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端緒라는 것은 仁을 완성해 나가는 실마리를 말한다. 사람이 본래 仁性을 가지고 있으나 자기의 삶 속에서 仁을 구현해 나가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과제이며 惻隱之心이 일어나는 것을 단초로 하여 확충해 나간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惻隱之心은 잠깐 동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원초적인 마음의 움직임이라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맨 처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나무의 싹과 같이 여리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아직 인식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 이해 타산의 판단이 개입되기 전의 마음이므로 또한 복잡하지 않고 순수하다고 할 수 있다.

惻隱之心이 일어날 때 天理의 仁성과 마음의 氣의 변화가 결합되는 양상은, 浩然之氣가 비록 氣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義와 짝하여 길러지는 것과 유사하다. 즉 浩然之氣는 天理의 義와 合一함으로써 무한한 영역까지 확장되는 氣라고 할 수 있으니⁴⁾, 氣와 理가 합일하여 나타난다는 점에서 惻隱之心의 발현과 유사하다.

惻隱之心은 마음속에 아직 완전한 仁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天理와 氣가 함께 개입하여 나타나는데, 이것은 원초적인 무의식[未發]에 가깝기 때문에 仁術과 같이 현실적인 실행의 단계로 발전하기 전의 마음 상태라 할 수 있다.

3. 仁術의 개념

惻隱之心은 아직 마음의 경향성 정도에 불과하나 이것이 현실에 실행되기 위해서는 仁術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仁術은 바로 仁性を 현실에 적용한 것으로서, 理의 원리를 氣의 현실 속에 구현한 것이

다. 그런데 氣의 현실 세계는 量의 多少나 질적인 편차가 존재하므로 그 속에서 운동 변화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러므로 기술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에 얼마나 적절하게 대처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孟子』에서 齊宣王이 소가 死地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빠진 딜레마는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난 惻隱之心과 王이라는 公人으로서 鑿鍾을 폐지할 수 없는 현실의 모순을 바탕으로 한다⁵⁾. 실제 齊宣王은 순간적으로 소를 살리고 양으로 犧牲을 대신하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현실의 모순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방편으로서 仁術이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 齊宣王의 딜레마 해결에 대해 孟子는 “無傷也, 是乃仁術也, 見牛未見羊也. 君子之於禽獸也, 見其生, 不忍見其死, 聞其聲, 不忍食其肉. 是以君子遠庖廚也.”⁶⁾ 라고 설명하였다. 소에 대해 일어났던 왕의 惻隱之心은 손상 받을 것이 없으니, 양은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양에 대한 惻隱之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소를 양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같은 동물인 양에 대하여는 왜 붙잡히여가지 않는가 하는 仁의 보편적인 적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소를 아끼려고 했던 惻隱之心[初發心]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존하려는 노력에 주목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惻隱之心은 원초적인 마음이 발현한 것으로서, 아직 구체적이고 견고한 의지로 굳어진 것이 아니어서 손상받기 쉬우므로 잘 보존하여 키워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朱子の注를 살펴보자.

蓋殺牛既所不忍, 鑿鐘又不可廢. 於此無以處之, 則此心雖發而終不得施矣. 然見牛則此心已發而不可遏, 未見羊則其理未形而無所妨. 故以羊易牛, 則二者得以兩全而無害, 此所以爲仁之術也. 聲, 謂將死而哀鳴也. 蓋人之於禽獸, 同生而異類. 故用之以禮, 而不忍之心施

4) 『孟子』(金赫濟校閱. 孟子集註(上). 서울. 명문당. 1983. p.131, 133, 134.)에서 “其爲氣也,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于天地之間.”이라 하여 浩然之氣의 무한성을 말하였으며, “其爲氣也, 配義與道, 無是, 餒也.”, “是集義所生者, 非義襲而取之也. 行有不慊於心, 則餒矣.”라 하여 義와 결합하여 무수한 실행을 통해 길러지는 것으로 보았다.

5) 『孟子』(金赫濟校閱. 孟子集註(上). 서울. 명문당. 1983. p.34.)에서 “臣聞之胡齮曰, 王坐於堂上, 有牽牛而過堂下者, 王見之曰, 牛何之? 對曰, 將以鑿鍾. 王曰, 舍之. 吾不忍其觶觶若無罪而就死地. 對曰, 然則廢鑿鍾與. 曰, 何可廢也, 以羊易之. 不識有諸.”라 하였다.

6) 金赫濟校閱. 孟子集註(上). 서울. 명문당. 1983. p.38.

於見聞之所及。其所以必遠庖廚者，亦以預養是心，而廣爲仁之術也。⁷⁾

만약 齊宣王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참고 지나갔다면 소에 대해 일어난 惻隱之心은 현실 속에서 아무런 결과 없이 사라져 갔을 것이지만, 양에 대해서는 아직 그 모습을 보지 못하여 방해될 것이 없으므로 양자 선택의 딜레마를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견 이러한 해결 방안은 현실 문제의 근본적인 본질을 놓아둔 채 상황논리의 편법으로 쉽게 대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孟子가 保持하려고 하였던 惻隱之心은, 바로 天理의 仁性を 기반으로 일어나서 외부로부터 오는 소리나 색 등 氣의 영향을 받아 마음속에 형성되는 理氣合一의 상태로써, 향후 仁의 知行合一의 완성에 중요한 시작이 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잘 살피서 살려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惻隱之心은 또한 외부 氣의 영향을 받아서 대상물에 따라 상대적이며 특수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상 간 선택의 갈등에서부터 벗어날 수도 있었다. 仁術이란 바로 이러한 惻隱之心을 현실 속에서 보존하고 키워나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는데 惻隱之心이 대상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시행될 수 있다. 또한, 仁術의 핵심은 어떠한 방안이든 실제 실행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으므로 知行 중에서 특히 행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惻隱之心의 발로가 마음속에서 理와 氣가 합일되는 것이었다면 仁術의 시행은 이러한 마음이 현실의 행동으로 이어져 知와 行이 합일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으니, 그 궁극적인 목표는 실행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仁術에 의해 어떠한 實行이 이루어졌을 때, 氣로 대표되는 현실 세계에서는 그 惻隱之心이 발동하였던 대상에 대해 무엇인가 氣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면 齊宣王의 경우처럼 끌려가던 소가 목숨을 유지하게 된 결과 등이다. 仁術은 이와 같이 시행되었을 때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이 행동으로 실천되어 구체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孟子의 정

치관에 있어서 국가 경제를 먼저 살리고 교육을 시행하는 순서도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해주는 仁政의 시행에서 출발한다. 국가적 차원의 仁術은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여 경제를 살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적인 고통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다⁸⁾. 즉, 백성들로 하여금 養生喪死에 恨이 없도록 하는 것이 王道政治 즉 仁政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⁹⁾. 이것은 先天의 원리가 현실 속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後天의 물질적 기반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4. 仁의 擴充과 사회적 仁의 완성

『孟子』에서 仁術이, 惻隱之心의 발로를 참치[忍] 말고 또는 외면하지 말고 잘 길러 나가서 현실에서 그 구현 방안을 찾는 것이라면, 이것을 사회적 仁의 구현으로까지 넓혀나가는 것이 바로 擴充이다. 미루어 넓히는 방법은 가장 친한 사람에서부터 소원한 外物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孟子』에서 “親親，仁也，敬長，義也。無他，達之天下也。”¹⁰⁾라 하였고, 또한 “孟子曰，君子之於物也，愛之而弗仁。於民也，仁之而弗親。親親而仁民，仁民而愛物。”¹¹⁾이라 하여 仁이 親親에서 시작하여 천하의 사람들과 사물들에게까지 미치는데, 私의으로 친한 사이에 아껴주는 마음이 親이고 衆人

8) 『孟子』(金赫濟校閱. 孟子集註(上). 서울. 명문당. 1983. p.19.)에서 “五畝之宅，樹之以桑，五十者可以衣帛矣。雞豚狗彘之畜，無失其時，七十者可以食肉矣。百畝之田，勿奪其時，數口之家可以無飢矣。謹庠序之教，申之以孝悌之養，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七十者衣帛食肉，黎民不飢不寒，然而不王者，未之有也。”라 하였고, “王如施仁政於民，省刑罰，薄稅斂，深耕易耨。壯者以暇日修其孝悌忠信，入以事其父兄，出以事其長上，可使制梃以撻秦楚之堅甲利兵矣。”라 하였다. 朱子는 여기에 대해 “省刑罰，薄稅斂，此二者仁政之大目也.”라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仁政의 큰 덕목이라 하였다.

9) 『孟子』(金赫濟校閱. 孟子集註(上). 서울. 명문당. 1983. p.18.)에서 “不違農時，穀不可勝食也，數罟不入洿池，魚鼈不可勝食也，斧斤以時入山林，材木不可勝用也。穀與魚鼈不可勝食，材木不可勝用，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養生喪死無憾，王道之始也。”라 하였다.

10) 金赫濟校閱. 孟子集註(下). 서울. 명문당. 1983. p.286.

11) 金赫濟校閱. 孟子集註(下). 서울. 명문당. 1983. p.331.

7) 金赫濟校閱. 孟子集註(上). 서울. 명문당. 1983. pp.38-39.

을 공평하게 아껴주는 마음이 仁이며 物物을 아껴주는 것을 愛라 하였다. 朱子는 여기에 대해 “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 所謂以其所愛及其所不愛也.”¹²⁾라 하여 親, 仁, 愛 등을 크게 보면 모두 愛의 범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자신으로부터 가장 친한 부모, 형제에 대하여 惻隱之心을 발하여 아껴주고 그것을 타인의 부모, 형제까지 확충해 나가는 데 이러한 擴充의 개념을 다시 나누어 보면, 仁을 베풀 대상을 넓혀 나가는 것이 擴이고 그들에게 仁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여 채워나가는 것이 充이다. 朱子는 親親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蓋骨肉之親, 本同一氣, 又非但若人之同類而已. 故古人必由親親推之, 然後及於仁民. 又推其餘, 然後及於愛物, 皆由近以及遠.¹³⁾

부모, 형제의 혈연관계는 원래 남들보다 동일한 氣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친하며 이것으로부터 시작하여 仁民과 愛物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親親이 가장 가까우면서도 쉽다고 하였다. 朱子는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蓋天地之性, 人爲貴. 故人之與人, 又爲同類而相親. 是以惻隱之發則於民切而於物緩, 推廣仁術則仁民易而愛物難.¹⁴⁾

天地的 존재 중에서 사람이 가장 귀하며 서로 친하므로 惻隱之心을 발할 때에 物보다는 衆人들에게 질실하게 나타나며 仁術을 넓혀나갈 때에도 仁民이 수월하다는 것이다.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방법은 老吾老, 幼吾幼하여 易地思之로 근본을 미루어 나가는 것이며[推本]¹⁵⁾ 이때에는 타인을 자신과 친한 관계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남의 가족을 나의 가족으로 여기는 적극적인 인식의 노력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공동체 의식이나 명분을 바탕으로 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¹⁶⁾.

仁術이 시행되고 그것이 확충되어 나갈 때 온 천하에 仁한 마음과 행동이 미치게 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것으로 사회적 仁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仁性を 바탕으로 擴充하여 모든 이를 아끼고 도움을 주었으나, 만민들이 스스로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교육이 필요하다. 『孟子』에서 “謹庠序之教, 申之以孝悌之義, 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라 하여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경계를 뒷받침한 후에 교육을 통하여 孝悌를 실행하도록 하였다. 즉, 仁을 계속 베푸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서로 仁을 실천하여 돕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仁을 완성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孟子는 일반 대중들은 교육되어 있지 못하므로 恒心을 유지할 수 없으니, 만약 恆産이 없으면 惡에 빠지기 쉽다고 하였다¹⁷⁾.

일반 대중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 본연의 惻隱之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어¹⁸⁾ 친한 이를 돕게 된다. 仁성이 발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면 이후에 교육을 통하여 그것이 인간의 가장 편안한 삶을 인식하고¹⁹⁾, 그 마음의

而功不至於百姓者, 獨何與?”라 하였다.

16) 親親而仁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처음에 惻隱之心이 발현될 때 親親을 애써 외면하는 경우와 仁民을 힘에 겨워 포기하게 된 것들이 문제가 된다. 仁民과 愛物까지 넓혀나가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해야 하므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少陽인 경우에는 논리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대상의 범주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데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怒성이 작용한다.

17) 『孟子』(金赫濟校閱. 孟子集註(上). 서울. 명문당. 1983. pp.50-51.)에서 “無恆産而有恆心者, 惟士爲能. 若民, 則無恆産, 因無恆心. 苟無恆心, 放辟, 邪侈, 無不爲已. 及陷於罪, 然後從而刑之, 是罔民也. 焉有仁人在位, 罔民而可爲也.”라 하였다.

18) 최소한의 경제적 바탕이 만들어졌을 때 惻隱之心이 자연스럽게 발동한다는 것은 인간의 本性이 선하다는 性善說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 『孟子』(金赫濟校閱. 孟子集註(上). 서울. 명문당. 1983. p.168.)에서는 “夫仁, 天之尊爵也, 人之安宅也. 莫之禦而不仁, 是不智也.”라 하여 仁이 마음의 가장 편안한 本性의 자리임을 설명하였다.

12) 金赫濟校閱. 孟子集註(下). 서울. 명문당. 1983. p.335.

13) 金赫濟校閱. 孟子集註(上). 서울. 명문당. 1983. p.44.

14) 金赫濟校閱. 孟子集註(上). 서울. 명문당. 1983. p.41.

15) 『孟子』(金赫濟校閱. 孟子集註(上). 서울. 명문당. 1983. p.43.)에서 “老吾老, 以及人之老, 幼吾幼, 以及人之幼, 天下可運於掌. 詩云, 刑于寡妻, 至于兄弟, 以御于家邦. 言學斯心加諸彼而已. 故推恩足以保四海, 不推恩無以保妻子. 古之人所以大過人者無他焉, 善推其所爲而已矣. 今恩足以及禽獸,

단서를 키워나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됨으로써 仁의 인간으로 성숙하게 된다. 만약 교육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경제적 소득 또는, 仁術에 의해 받게 되는 物物들이 가져다준 樂性的의 快樂에만 빠지게 된다. 朱子는 이를 짐승에 가까워진다고 하였다.²⁰⁾ 또한 본능적인 욕구만을 쫓으면 결국에는 자신과 가장 친한 친척 가족도 등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하며 仁性を 擴充하는 교육을 실행함으로써 公의인 善을 구현하는 것이 孟子가 말한 王道政治의 완성이며 곧 仁性의 사회적 재생산인 동시에 公의인 仁으로의 회복이기도 하다.

5. 天人性命과 仁의 관계

『東醫壽世保元』에서는 “人趨心慾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 名曰鄙人. 棄義而偷逸者, 名曰懦人. 棄智而飾私者, 名曰薄人. 棄仁而極慾者, 名曰貪人.”²¹⁾이라 하여 仁義禮智에 대해 鄙懦薄貪인과 연결시켜 설명하였으며²²⁾, 『格致彙』에서는 “智之所往, 天下不哀. 仁之所來, 天下皆樂. 禮池所臨, 天下不怒. 義之所立, 天下皆喜.”이라 하여²³⁾ 哀怒喜樂에 순서대로 智禮義仁을 배속하였다. 四象인의 天性 자리로 본다면 下焦부터 上焦까지 순서대로 仁義禮智가 배속되어 있다. 仁性 이 발현되는 자리인 가장 아래쪽 下焦는 事心身物 중의 物性和 哀怒喜樂 중의 樂性이 드러나는 곳이며 天機 중의 地方, 人事 중의 居處, 行其知인 性 중의 度

量, 行其行인 命 중의 方略 등이 배속되어 있다.

1) 惻隱之心의 발현

우선 惻隱之心이 발현되는 과정을 四焦에서 벌어지는 天人性命의 分化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본다. 惻隱之心은 仁性의 天理와 친히 여기고 아끼는[親愛] 마음이 습一되어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서 仁性은 上焦의 天時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原理는 事心身物 중 인간세계의 영역인 心和 身을 벗어나 事와 物의 영역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事의 속성에 가깝기 때문이다. 上焦에서 벌어지는 事에 해당하는 天人性命으로는 天時, 事務, 籌策, 識見이 있는데 그 중 事務는 事를 현실 속에서 실행하는 과정이며, 籌策은 복잡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비교 판단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며, 識見은 현실에 대한 빠른 판단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에 비하여 天時는 事의 本性으로 하늘의 운행 즉 시간의 변화를 말하는데, 언제나 변함없이 진행되는 天地 宇宙의 陰陽變化 원리를 그 속에 담고 있다. 그러므로 仁性의 天理가 자리 잡고 나타나는 곳은 바로 上焦이며 거기서 벌어지는 天人性命의 특성 중에 天機에 속하는 天時가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사람에게 부여된 天理인 仁性도 우주 속에서 생성 소멸하는 존재인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여 올바른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으므로 天時와 관련되어 있다. 실존적 존재인 사람이 이러한 天理를 살피고 나서 자신의 마음을 발하는데 이 과정에서 哀性이 나타난다. 哀性은 天理의 絶對善과, 현실 모순 사이의 차이를 바라보고 느끼는 애달픈 마음이다. 같은 上焦에서 나타나는 哀情은 안타깝고 애달과 하는 형상만을 따온 것으로 哀의 본성이 아니라 哀로 인한 감정의 氣의 변화만을 표현한 것이다.

愛心은 대상을 친하게 여겨서 아껴주는 마음인데 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陽에 속하는 哀怒가 갈등의 감정이라면 陰에 속하는 喜樂은 친화의 감정이다. 그러므로 愛心은 喜樂에 속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樂의 감정에 가깝다. 喜는 공동체의 개방적 관계 속에서 상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감정인 반면에 樂은 자신이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아

20) 朱子는 孟子의 注(金赫濟校閱. 孟子集註(上). 서울. 명문당. 1983. pp.20-21.)에서 “夫民衣食不足則不暇治禮義. 而飽煖無教則又近於禽獸. 故既富而教以孝悌則人知愛親敬長而代其勞, 不使之負戴於道路矣.”라 하였다.

21) 송일병 외 편. 사상체질과 임상편람-東醫壽世保元.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2007. p.4.

22) 東醫壽世保元(송일병 외 편. 사상체질과 임상편람-東醫壽世保元.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2007. p.8.)에서 “太陽之人, 雖好爲雄, 亦或宜雌, 若全好爲雄則放縱之心, 必過也. 少陰之人, 雖好爲雌, 亦或宜雄, 若全好爲雌則偷逸之心, 必過也. 少陽之人, 雖好外勝, 亦宜內守, 若全好外勝則偏私之心, 必過也. 太陰之人, 雖好內守, 亦宜外勝, 若全好內守則物欲之心, 必過也.”라 하여 仁義禮智를 배속하고 있다.

23) 송일병 외 편. 사상체질과 임상편람-格致彙.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 2007. p.19.

끼고 보호해주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친하다고 느끼는 대상에 대해 愛心이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맹목적이기도 하다. 樂性이 아낌없이 희생하여 보호하려는 本性이라면 樂情은 친밀감이 대상에 고착된 것으로서 물질적 즐거움이나 쾌락에 가까운 것이니 樂의 대상인 물질 형상만을 취한 것이다.

下焦는 物性이 드러나는 곳으로서 天機 중에서 地方이 배속되어 있다. 즉, 天地 宇宙의 物的 토대가 되는 땅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변하지 않으며 맛을 통하여 느낀다고 하였다. 물질은 불변적인 속성을 가지며 맛은 이러한 物性을 직접 접촉을 통하여 알아내는 것이다. 확고한 물성에 기반하므로 맛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며 쉽게 성질이 바뀌지도 않고 마음속에 기억으로 잔존되어 오래 동안 지속된다. 또한 물질 간 접촉의 확실성은 서로 氣의 속성이 같을 경우 상당한 친밀감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친밀감은 私의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惻隱之心을 발휘하게 만드는 가장 원초적인 깊은 친밀감이 바로 下焦의 物性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下焦에 배속된 天地의 物的 토대 중에서 居處는 실존적 개인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物物들이며²⁴⁾, 度量은 物物을 品別하여 활용하기 위한 방법론이므로 惻隱之心의 마음 자체라 할 수 없고, 方略은 物物들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므로 惻隱之心이 아직 현실 속에서 실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큰 관련이 없다. 事心身物 중 身의 속성이 자리하고 있는 中下焦의 경우 喜性을 바탕으로 人倫에 밝으며 喜情에 의해 黨與가 일어나는데, 이는 부모, 형제, 친척 등으로 구성된 가족 중심의 공동체를 사회 속에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私의인 친밀감[愛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결국 惻隱之心의 발현은 事心身物의 네 가지 천지 만물의 특성 중에서 객관세계인 事物의 영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것이 이후에 인간세계에 속한 心身에 의하여 확장되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즉,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본주의적 특성인 怒性和 공동체를 갈구하는 사회적 특성인 喜性은 惻隱之心이 발현한 이후 擴充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다.

2) 仁術의 실행

惻隱之心이 발현된 이후 그것을 현실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仁術이다. 仁術은 知行合一의 시작으로 구체적인 실행으로 귀결되어 氣의 변화를 일으키므로 下焦의 物的 토대와 관련되어 있다. 즉, 上焦 事의 原理에서부터 시작하여 下焦 物의 현실로 귀결된다. 下焦에서 벌어지는 天人性命 중에서 仁術의 실행과 관련 있는 것을 살펴보면, 人事 중의 居處는 생활에 기본이 되는 물질적 토대로서 仁術 실행 과정의 결과물에 해당한다. 또한 天機 중의 地方은 樂性和 관련되어 있어서 惻隱之心이 初發하는데 관여하며, 度量은 物物을 인식하여 규정하는 방법론이고, 方略은 物物을 시의적절하게 운용하는 대략적인 방안을 말한다.

仁術이란 현실 속에서 仁性을 구현하기 위하여 그 모순과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物的인 토대를 운용하여 직면한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方略이 중요하다. 方略은 上焦에서 벌어지는 籌策, 識見과는 다르다.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저울질하여 중장기적인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籌策이며, 대중들이 나아갈 커다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識見이라면, 方略은 현실의 당면한 갖가지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다. 仁術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당면한 문제의 적절한 해결점을 즉시 찾아가는 것과 유사하다. 단, 方略이 物性에 기반하지 않고 측은지심 없이 시행될 경우에는 현실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만 급급하는 폐단이 생기게 된다.

또한, 앞에서 말했듯이 仁術의 본질은 현실의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발하였던 惻隱之心을 보존하고 길러 나가는 데에 있다. 惻隱之心이 싹틔었을 때 그것을 참고 자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마음이 괴롭고 불편하지 않도록 현실과 타협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로 仁術이다. 단, 여기에 원리적인 측면에서 大衆의 고통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仁의 本性이 들어가 있으므로 上焦의 哀性이 관련된다. 즉, 惻隱之心이 발현하는 과정에서 仁性의 原理가 바탕이 되는데 이는 天時의 原理性和 이어지므로 마음속에서 현실의 모순과 고통을 가슴아파하는 哀性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24) 사람이 살아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衣食住 기반을 말한다.

3) 仁의 擴充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惻隱之心이 일어날 때는 物性, 樂性에 기인하며, 仁術이 시행되어 知行合一이 이루어질 때에는 方略이 관여한다. 이후 사회적 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仁의 擴充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에는 事心身物 중 인간적 요소인 心, 身의 本性이 관련되어 있다. 즉, 心身의 本性인 禮性和 義性 그리고 그로부터 발전되는 怒性和 喜性에 의해 벌어지는 世會, 人倫이 바로 그것이다. 世會는 事物心身の 존재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는데서 출발하며, 人倫은 선천적으로 정해진 인간관계를 기쁘게 여기는 데서 출발한다.

仁을 擴充할 때 擴은 仁術을 시행할 범주를 넓혀 나가는 것이며 充은 넓어진 관계를 바탕으로 仁術을 베풀어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인간관계를 넓혀 나갈 때 老吾老, 幼吾幼의 易地思之[恕]를 바탕으로 하는데 우선 나의 어른, 나의 자식과의 관계를 人倫의 本性을 바탕으로 인식함으로써 공동체적 소속감을 일으키며, 또한 합리적인 명분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世會를 바라보고 분석함으로써 남의 부모와 자식도 자기의 그것으로 치환하여 동일하게 대하게 된다. 이와 같이 世會, 人倫의 本性을 토대로 인간관계를 확장한 후에 구체적인 일을 시행하여 채워나가게 되는데, 樂性的 惻隱之心은 혈연관계에 국한하지 않은 보편적인 利他心이므로 人倫의 天性에 선행하는 조건이 되며, 또한 擴充의 최종 단계에서는 실제로 物的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를 현실에 적절하게 운용하는 方略이 다시 필요해진다. 그러나 실제 사회적 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擴充의 단계가 보다 중요하며 여기에는 世會와 人倫에 밝은 本性이 큰 힘을 발휘한다.

6. 少陰人과 仁의 관계

少陰人은 天機 중 下焦의 地方을 맛보는 樂性을 타고 났으며 人事에 있어서는 喜情이 동하여 黨與를 잘 하고 中上焦에서는 經綸을, 上焦에서는 識見을 발휘한다. 이 중에서 樂性이 惻隱之心 즉, 親愛하는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 氣의 동질감에서부터 친한 감정이

썩뜨기 때문이다.

반면에 惻隱之心의 原理가 되는 仁性 즉 愛之理는 上焦의 天時와 관련되어 있다. 太陽人이 타고나면서 본성적으로 듣게 되는 天時는 곧 天地宇宙의 변화 원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原理란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며 또한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즉 公的인 연민은 한 개인이 아니라 大衆을 대상으로 한다. 많은 사람에게 공평하게 연민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차원의 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개인의 입장에서 이를 보았을 때 남과 차별받지 않으므로 공평하다고 느끼질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기만을 특별히 아끼고 위해주지 않기 때문에 멀게 느껴질 수 있다. 마치 하늘이 만물을 공평하게 길러주는 큰 마음은 있으나 天地가 不仁하다는 말처럼 그것이 가까운 情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공허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하여 땅의 物性은 맹목적이기는 하나 친밀한 마음을 만들어내어 우선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을 촉발시킨다. 비록 仁性이라는 天理에 기반을 두고 나타나지만 마음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에서 地의 物性이 매우 중요하다. 『東醫壽世保元』에서 仁을 下焦에 둔 이유도 아직 발현되지 않은 仁性의 原理보다는,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氣의 토대 즉 物性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東武遺藁』에 나오는 太陽과 少陰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頭之髓海, 神之所舍也. 神之爲氣, 光明而鑑造化, 自有識見, 則此句之論, 太陽人言而特學少陰人言者, 蓋少陰出太陽而奪其母神故也...

腎之精海, 魄之所舍也. 魄之爲氣, 盛大而壯經營, 自有方略, 則此句之論, 少陰人言而特學太陽人言者, 蓋太陽生少陰而恃其子魄故也.²⁵⁾

즉, 少陰은 太陽으로부터 나와서 그 어머니인 太陽의 神을 빼앗아 쓰는데 여기서 識見이 나타난다. 識見은 少陰이 원래 가지고 있는 物性을 잘 파악하는 본성을 바탕으로 원리적으로 事物을 파악하여 자신이 처한

25) 송일병 외 편. 사상체질과 임상편람 東武遺稿海東本.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2007. p.13.

주변 상황을 직접 인식하고 바로 견해를 제출하는 것이다. 太陽은 天地 萬物에 대한 공평한 원리에 밝아서 밖으로 氣의인 생명 활동이 벌어지는 場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만, 少陰은 자식의 입장에서 안으로 자신이 처한 삶을 영위하는데 주력해야 하므로 당장의 상황을 인식하는 識見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識見의 상황 인식은 나와 남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커다란 집단적 방향을 결정하는데 작용한다. 반대로 方略의 경우를 보면 太陽은 少陰을 낳았지만 자신은 原理만 있고 物的 토대가 없으므로 少陰의 그것에 의지하게 되는데, 어미를 보살피려는 少陰의 物性에 의지하여 최소한의 현실적 기반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게[方略] 된다.

惻隱之心이 처음 발하는 경우에 太陽의 天理를 바탕으로 짚어서 少陰의 物性에 기반한 愛親의 마음에 의해 動하는데, 이것이 仁術로 발전할 때에는 각각 처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가치판단과 실천이 동반된다. 즉, 惻隱之心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의 氣의 변화와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齊宣王이 鑿鍾을 폐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나름대로 是非를 분명히 가린 것이다. 少陰人的 경우 識見을 발휘하여 빠른 시간 안에 현실을 인식하고 해결 방향을 찾아가는데, 仁術을 시행할 때에는 각각 처한 상황에 맞는 가치판단과 행동 결정을 위한 識見이 필요하다. 識見에 비해 籌策은 현실의 모든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랜 검토 끝에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仁術의 시행에서 시급하게 현안을 결정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양보다 당장 죽기 싫어하는 소를 불쌍히 여긴 것은 마음의 氣의인 변화와 느낌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것이 가장 솔직한 마음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惻隱之心을 특수한 현실에 맞추어 기술적으로 시행하고 나서 이를 다시 미루어[推] 천하의 사람들에게까지 擴充시킴으로써 仁을 사회적으로 온전히 구현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儒學에서 親親而仁民을 통하여 仁을 사회적 가치로 확충해 나가는 과정을 분석해보면, 親親은 가까운 이를 아끼는 마음의 발로이지만 仁民은 易地思之의 논리

로써 현실을 인식하여 미루어[推] 나가는 것이다. 幼吾幼, 老吾老의 과정에서 모든 어른들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어른이라는 생각은 공평한 原理에서 나오지만, 실제로 타인의 老, 幼를 본인의 老, 幼로 인식하는 과정 중에는 명분과 논리가 작용하며 이는 世會에 밝은 少陽의 怒性에 속한다. 또한 미루어 확충하는 과정에는 명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며 이것은 人倫에 밝은 太陰의 喜性에서 나온다.

7. 太陽人과 太極之心과의 관계

上焦의 天時에서 나오는 원리적 특성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타고난 중앙 太極之心을 비교함으로써 仁性の 原理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살펴본다. 儒學에서는 인간의 本性이 원래는 公的인데 단지 物慾에 가리워져 발현되지 못한다고 보고자 한다²⁶⁾. 物慾에 대하여 朱子는 “仁義根於人心之固有, 天理之公也. 利心生於物我之相形, 人欲之私也.”라 하여 人欲의 사사로움이 外物과 自我를 분별하는데서 시작한다고 하였다. 분별심은 私心을 유발하고 소유욕을 만들어내며 이러한 人欲의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善惡의 편차가 나타난다. 『東醫壽世保元』에서도 인간의 타고난 本性이 원래 公的이라고 보았는데 개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好善과 惡惡의 마음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耳目鼻口之情 行路之人 大同於協義故 好善也
好善之實 極公也 極公則 亦極無邪也
肺脾肝腎之情 同室之人 各立於擅利故 惡惡也
惡惡之實 極無私也 極無私則 亦極公也²⁷⁾

善은 원래 차별성을 벗어난 절대적 가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善함을 좋아하는 것[好善]도 마땅히

26) 朱子는 大學 序文(金赫濟校閱, 大學中庸, 서울, 명문당, 1986. p.1.)에서 “蓋自天降生民, 則既莫不與之以仁義禮智之性矣. 然其氣質之稟或不能齊, 是以不能皆有以知其性之所有而全之也.”라 하여 타고난 氣質로 인하여 本性이 발현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27) 송일병 외 편. 사상체질과 임상편람 東醫壽世保元.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2007. p.2.

지극히 공한 것이고, 惡을 싫어하는 것[惡惡]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私心을 없애려 하는 과정이므로 궁극적으로는 공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好善, 惡惡이 제대로 발현되는가에 따라 사람마다 善惡의 편차가 달라지는데 이는 곧 중앙 太極之心의 편차이며 그 편차에 따라 결국 聖인과 小人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五臟之心 中央之太極也 五臟之肺脾肝腎 四維之四象也

中央之太極 聖人之太極 高出於衆人之太極也
四維之四象 聖人之四象 旁通於衆人之四象也

太少陰陽之臟局短長 四不同中 有一大同 天理之變化也 聖人與衆人 一同也

鄙薄貪懦之心地清濁 四不同中 有萬不同 人欲之闊狹也 聖人與衆人 萬殊也²⁸⁾

『東醫壽世保元』에서 心은 太極을 상징하며 肺脾肝腎 四臟은 각각 사방에 치우쳐 있는데, 오직 聖인의 太極之心만이 높이 솟아있어 衆인과 차이가 나며 肺脾肝腎 四臟은 聖인과 衆인이 비슷하다고 하였다. 太少陰陽의 臟局은 동일한 天地의 原理를 갖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大同하지만 心地의 清濁이 갈라지는 것은 욕심의 넓고 좁음 때문이니 聖인에서 衆인까지 만가지로 편차가 나뉘지게 된다고 하였다.

衆인이 聖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明辨과 擴充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를 氣와 理의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人欲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太極之心에서 浩然之理가 나오고 四臟의 氣를 넓혀 채우는 것에서 浩然之氣가 나온다고 하였다. 明辨과 擴充이 바로 개인 자신의 仁을 발현시키고 사회 속에서 그 仁을 구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浩然之氣 出於肺脾肝腎也 浩然之理 出於心也

仁義禮智四臟之氣 擴而充之則 浩然之氣 出於此也
鄙薄貪懦一心之慾 明而辨之則 浩然之理 出於此

28) 송일병 외 편. 사상체질과 임상편람東醫壽世保元.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2007. p.4.

也²⁹⁾

이와 같은 궁극적인 仁의 사회적 구현이 太陽人の 본성에 가까운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太極之心을 회복하는 보편적이 과정에 나타나는 특성인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太陽人の 원리적 특성이 중앙 太極之心과 유사한 점도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 『東武遺藁』에서 “耳屬神, 無形之物, 故能聽天時輕清無形之聲.”³⁰⁾이라 太陽人の 耳聽天時를 설명하였는데 여기서 輕清無形한 것이 바로 理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東醫壽世保元』에서도 “太陽人 雖至愚 其性 便便然 猶延納也 雖至不肖 人之善惡 亦知之也.”³¹⁾라 하여 어떤 太陽人은 비록 부덕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善惡을 볼 줄 안다고 한 것도 太極之心과 物慾의 차이를 인식하는데 밝기 때문이다.

그러나 太極之心이 物慾을 걷어내고 온전히 발현되면 모든 사람이 부여받은 天理 그대로의 상태로 회복하여 陰陽의 편차를 벗어나게 되는데 비하여, 肺大肝小의 편향된 조건을 가지고 있는 太陽人은 자체로 부조화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太陽人은 身의 영역에서 喜性이 잘 발현하지 못한다. 喜性은 하늘이 정해준 혈연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 가치를 인식하고 좋아하는 것으로서, 太陽人은 이러한 사회적 인간관계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므로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치면서 관계들을 조정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喜性의 부족은 太極之心의 회복을 저해하게 되는데, 현실의 인간관계가 분화되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私心과 怠心으로 인해 잘못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계발하여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聖인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聖人은 대중 속으로 나아가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관계를 맺고 상대에 적합하게 응대하려고 하며 교육 등 사회적으로 도움을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한다.

29) 송일병 외 편. 사상체질과 임상편람東醫壽世保元.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2007. p.4.

30) 송일병 외 편. 사상체질과 임상편람東武遺稿海東本.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2007. p.12.

31) 송일병 외 편. 사상체질과 임상편람東醫壽世保元.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2007. p.8.

太陽人이 天時[天理]를 이해하고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交遇, 行檢, 方略 등이 나타난다. 交遇는 일 중심의 公的인 인간관계를 말하며 太陽人이 人事를 행하면서 능한 부분이다. 그에 비해 공동체적 사회관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여 단지 行檢의 형태로 나타나며, 물질적 기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方略이 나타난다. 行檢은 일을 바로 실행에 옮기고 후에 결과를 검열하는 것으로서 중간 과정에서 實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方略은 天理를 사회적으로 구현하려 할 때 필요한 물질적 기반을 운영하는 방법으로서 당장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대략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方略은 太陽人의 입장에서 下焦에서 仁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天理를 현실에 뿌리내리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太陽人이 원래 物性의 본질에 밝지 않고 少陰의 보살피는 仁性에 잠시 의지하는 것이므로 대략적인 방안이 그치는 것이다.

仁의 실현은 어느 체질에게나 보편적이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善한 本性을 살려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仁이 理氣, 그리고 知行의 合一을 통하여 완성되어 갈 때 우선 上焦의 原理와 下焦의 物性이 결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少陰人은 樂性을 바탕으로 仁의 마음을 일으키는데 識見을 통하여 大衆에게 펼치고, 太陽人은 哀性을 바탕으로 仁의 原理를 알아내어 方略을 통하여 大衆에게 펼쳐 나간다. 太陽人과 少陰人도 모두 仁의 擴充과 관련되어 있으나 親親而仁民 중에서 親親은 仁을 완성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므로, 愛心을 일으키는 下焦의 物性을 本性적으로 파악하는 少陰人이 가장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仁을 始發하여 실행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물론 각 체질별로 중앙 太極之心의 회복을 통하여 나름대로 仁을 구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어느 체질이든 자신의 타고난 天性을 중심으로 마음을 길러나갔을 때 仁義禮智에 편차에 상관없이 仁의 실현으로 귀결될 것이며 그것에 이르는 방법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Ⅲ. 결 론

1. 惻隱之心은 仁性の 原理를 바탕으로 愛心이 動하여 나타나는 원초적인 마음으로서 理와 氣가 合一되어 있으며, 仁術은 이를 현실에 시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知와 行이 合一되어 시행된다. 또한 惻隱之心과 仁術을 미루어 擴充하여 사회 속에 仁을 구현하는 것이 仁의 궁극적인 완성이다.
2. 惻隱之心이 발현할 때 仁性の 원리는 上焦의 天時와 관련되어 있으며 氣의인 마음의 변화인 愛親의 감정은 下焦의 物性, 樂性과 관련되어 있다. 仁術이 시행될 때에는 현실의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야 하므로 物物들을 시의적절하게 운용하는 대략적인 방편인 方略이 필요하며, 擴充의 과정에서는 心身의 本性을 바탕으로 世會와 人倫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3. 少陰人은 物性에 밝은 樂性을 바탕으로 惻隱之心을 일으키며 識見을 통하여 가장 올바른 실행의 방향을 찾아가며, 太陽人은 哀性을 바탕으로 仁性の 原理를 살피고 方略을 통하여 현실의 物物을 운용한다. 太陽人과 少陰人도 모두 仁과 관련되어 있으나 親親而仁民 중에서 親親이 仁을 완성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므로, 愛心을 일으키는 物性에 밝은 少陰人이 가장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仁을 발하여 실행할 수 있다.
4. 중앙 太極之心으로의 회복을 통하여 仁을 완성해 나갈 수 있으므로 체질별로 자신의 타고난 天性을 중심으로 마음을 길러나갔을 때 仁義禮智에 편차에 상관없이 仁의 실현으로 귀결될 것이며, 그것에 이르는 방법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참고문헌

1. 金赫濟校閱. 大學中庸. 서울. 명문당. 1986. p.1.
2. 金赫濟校閱. 孟子集註(上). 서울. 명문당. 1983.

- p.11, 34, 41, 125, 128, 131, 168. p.18-21, 38-39, 43-44, 50-51, 133-134.
3. 金赫濟校閱. 孟子集註(下). 서울. 명문당. 1983. p.286, 331, 335.
 4. 金赫濟校閱. 中庸. 서울. 명문당. 1976. p.2.
 5. 송일병 외 편. 사상체질과 임상편람·格致藁.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2007. p.19.
 6. 송일병 외 편. 사상체질과 임상편람·東醫壽世保元.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2007. p.2, 4, 8.
 7. 송일병 외 편. 사상체질과 임상편람·東武遺稿海東本.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2007. p.12, 13.